감사원 보고

국정 수행 정상화는 불신 해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원은 우수한 공직자들로 오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유지해왔고,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습니다. 외국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감찰기관도 많은데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내가 사담으로 한 (감사원 기능이관) 것을 보고에 집어넣었는데 전문적 식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한 배경에는 두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 정책적 역량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국회 예결 심사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국회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 훌륭한 기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치돼도 국정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리된 정보를 갖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기능을 감사원이 맡아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의심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동안 통치 행태가 변칙적, 비정상적 결정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그 동안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지만 조직이 대통령에게 소속돼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소해야 감사원의 위상도 높아질 것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권력남용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불신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가운데 각급 기관이 국정을 수행해야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 일부를 국회로 귀속시켜 신뢰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헌법기관이라서 법 개정해야 하고 제약이 있지만 조직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기능의 일부를 국회에 소속시키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는 2006~7년쯤에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론적으로만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미리 경험적으로 시험운영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헌법에 담아보자는 뜻입니다. 실험해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는 제 뜻만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만으로도 안 됩니다. 기관마다 주관적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느 조직이나 정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국정운영과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지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국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나는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두루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합니다.